



정읍 산외면,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개최

정읍시 산외면이 지난 15일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갖고 2026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즐거운 쉼터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근무 일정과 유의 사항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 안내됐다. 이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수칙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선발된 40명의 어르신은 앞으로 마을 곳곳에서 꽃밭 가꾸기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수행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외면을 만드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상서면,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안전교육

부안군 상서면은 지난 15일 상생문화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8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및 참여자 협약서 작성, 활동 규칙 안내 및 안전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80명은 11개월동안 8팀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상서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신감 부여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 상서면장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없이 즐겁게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경찰서, 현장 경찰관 안전관리 점검 나서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14일 태인면 고천리 왕림교차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안전 점검은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읍시 교통과, 전주국도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 등 협업을 통해 순찰차 3대, 싸이카 2대, 싸인카 2대, 청소차 1대 등 도로 정비 인력과 현장 처리 경찰 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반드시 후방차량 흐름을 통제하고 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한 뒤 사고 처리를 진행하도록 교육도 진행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사리 손에 모아진 동전에 '사랑을 담다'

22년째 이어진 임규래 회장과 손자의 나눔, 지역사회에 희망의 씨앗 전해

"처음엔 못먹고 따라오던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기부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차가운 경기와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2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온 이가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국 대의원과 친절봉사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임규래 씨와 손자 이야기다.

임 회장은 매년 손자들과 함께 돼지저금통을 들고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찾는다. 손자들의 작은 손에서 시작된 동전 하나하나는 해마다 차곡차곡 쌓여 이웃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 소박한 나눔은 어느새 22년째 이어지며 한 가족의 전통이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처음 저금통을 모아 전달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은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배워갔다. 용돈을 아껴 동전을 넣어 전달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는 과정은 말 없는 인성 교육이 됐다.

올해도 변함없이 지난 15일 임규래 회장은 손자인 권순범 학생, 유경곤 학생과 함께 지난 1년간 모은 돼지 저금통 성금 47만 4천300원과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직접 적십자사에 전달했다.

하루하루 모은 이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액수보다 더 값진 것은 이 돈에 담긴 마음과 시간이다.

임 회장은 개인적인 나눔에 그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 전국 대의원으로서 그리고 13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친절봉사회 회장으로서 봉사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나눔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있는 만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처럼 임 회장의 나눔은 특별하지 않다. 매일 모은 동전, 가족이 함께한 시간,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부다. 그러나 그 평범한 실천이 2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며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다.

임규래 회장 손자들의 돼지저금통은 단순한 저금통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것은 한 세대를 잇는 사랑의 기록이며, 나눔이 어떻게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다.

오늘도 양극화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는 임규래 회장과 손자들의 조용한 실천은 말없이 지역사회를 비추며,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더 넓고 깊게 전파하고 있다.

/이만희 기자



남원 토성클럽,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 기부

남원시는 관내 토성클럽(회장 김정근)에서 희망2026 나눔 캠페인 기간을 맞아 4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성클럽은 남원시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펼쳐왔으며, 덕음산 등산로 예어건 설치 등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정근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남원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토성클럽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청 주민복지과(063-620-6333)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행안면, 1분기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부안군 행안면(면장 은진)은 지난 15일 2026년 1분기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2025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고와 2026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주민자치위원회 주요 활동 계획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박한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에도 주민들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풍요롭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은진 행안면장은 "행안면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경찰서, 선 강연서 보이스피싱·사고예방 홍보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김제시 주최로 열린 가수 선의 강연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보행자 사고 예방을 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 김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및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김제경찰서는 선과 관련된 런닝을 인용해 '빠르게 뛰는 것처럼 보이스피싱도 빠르게 막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이스피싱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건강도 중요하고, 보행자 사고예방도 중요하!'라는 문구를 통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제경찰서는 홍보를 위해 파스와 핫팩 등 300개를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성의용소방대 퇴임 공은태 대장·신임 양성복 대장이·취임식

남원소방서는 지난 15일 남원소방서 대강당에서 남성의용소방대 퇴임 공은태 대장과 신임 양성복 대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은태 대장은 재임 기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며 남원공설시장 철시 시간대 예방순찰,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 활동, 겨울철 취약계층 화재 예방과 주민생활 안전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펼쳐왔다.

양성복 신임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남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욱 체계적이고 활력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Jeonju Maeil newspaper, including contact numbers and prices.

Large advertisement for a polar bear campaign titled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The place where the world is getting the warmest fastest 'Arctic'). It features a polar bear in a desert landscape and text encouraging people to protect their homes.